

호반, 시공능력 광주·전남 1위

국토부 시공능력평가...광주 호반건설주책·전남은 호반건설 각각 전국 13·33위...2위는 광주 보광종합건설·전남은 중흥

호반건설주책이 국토교통부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광주지역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도 계열사인 호반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또 다른 계열사인 호반건설산업은 울트라건설과 합병한 효과로 98계단이나 상승하며 전국 33위에 올랐다.

29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능력을 종합 평가한 '2018 시공능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 1위는 시공능력평가액 2조1619억원의 호반건설주책이고 2위는 보광종합건설(주) 시평액은 6353억원이었다.

호반건설주책은 전국에서는 13위에 올랐고 보광종합건설은 전국 순위 52위로 집계됐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을 산출해 매년 7월 말 공시한다.

시평액은 공사 발주자가 입찰제한을 하거나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 제도를 운용할 때 근거로 활용된다. 광주에서는 ㈜대광건설 3위(4099억·전

국 67위), 헤림건설(주) 4위(2841억·전국 96위), ㈜우미개발 5위(2076억·전국 125위) 등으로 나타났고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35위였던 ㈜탑인프라(499억)는 15위로 뒤졌다. 시공능력 평가액 1000억원이 넘는 건설사는 11개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호반건설이 1조 7859억원으로 1위(전국 16위)를 차지했다. 중흥토건(주)이 1조4949억원으로 2위(전국 22위)에 올랐고 금호산업(주)이 전년도 2위에서 3위(1조4345억원·전국 23위)로 내려앉았다.

이어 제일건설(주) 4위(1조2981억원·31위), 우미건설(주) 5위(1조214억·전국 42위) 등이었다. 전남에서는 5개 기업이 시공능력평가액 1조원을 넘었다.

전국적으로는 삼성물산이 5년 연속 1위

(17조3719억원)를 차지했고 2위는 현대건설(13조675억원)로 집계됐다. 3위로 대림산업(9조3720억원)이 올라섰고 대우건설(9조1601억원)은 4위로 내려앉았다.

GS건설(7조5259억원), 현대엔지니어링(7조4432억원)은 각각 한 계단 상승해 5위와 6위에 올랐다.

7위는 작년보다 두 계단 하락한 포스코건설(6조9633억원)이, 8위와 9위는 롯데건설(5조5305억원)과 SK건설(3조9578억원)이, 10위는 HDC현대산업개발(3조4280억원)이 각각 차지했다.

부영주책(1조3753억원)은 지난해 12위에서 올해에는 26위로 14계단이나 미끄러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현대·기아차 불확실성 지속

상반기 원화 강세·인센티브 확대 영향 영업익 '뚝'

현대·기아차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 향후 전망도 글로벌 통상 환경 약화와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9일 기아차가 발표한 올 상반기 경영 실적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6582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6.3%나 감소했다. 영업이익 뿐 아니라 경상이익은 25.4% 떨어졌고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3.9% 하락한 7638억에 그쳤다. 매출액만 26조6223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0.8% 증가했다. 판매 확대와 판매단가 상승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게 기아차 설명이다.

글로벌 판매량의 경우 1년 전과 비교해 4.4% 늘었다. 올 상반기 국내에서는 작년보다 4.7% 증가한 26만6165대를 팔았고 해외에서 4.4% 증가한 111만 9535대 등을 파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작년보다 4.4% 증가한 138만5700대를

판매했다.

하지만 원화 강세와 재고 축소를 위한 인센티브(딜러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확대 등으로 영업이익의 하락을 가져왔다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도 상반기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47조1484억원), 영업이익 37.1% 감소(1조6321억원), 당기순이익 33.5%감소(1조5424억원) 등을 골자로 한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현대차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늘어난 224만1530대를 팔았으나 달러화 대비 원화 강세, 주요 신흥국 통화 약세 등이 실적 약화 원인으로 작용했다.

기아차는 하반기 자동차 산업과 관련, 미국 시장의 인센티브 안정화, 내수·유럽·신흥시장에서의 판매 확대, 우호적인 환율환경 등 긍정적 요인 외에 미·중 무역분쟁, 미국 정부의 수입차 관세 부과 등의 부정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은행 문화교실서 한국 배웠어요” 다문화교실 4기 수료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27일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4기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4기 수료생들은 광주 남구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추천으로 선정된 20여명의 결혼이주여성으로, 광주은행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더 다양한 문화체험 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달 20일 개강을 시작으로 '이미지메이킹', '요가교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MBTI' 등 문화강좌가 진행됐다. 또 목공예 수업, 한과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과 광주은행 직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재테크 강의와 금융사기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송중욱 은행장은 “사회공헌활동으로 받은 사랑을 환원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



광주국세청, 납세자 권리 보장 다짐 대회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환)은 지난 27일 '납세자 권리 보장 실천'을 위한 결의문을 작성하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형환 광주청장과 광주청 및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모두 참석했으며, '납세자권리회장'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다짐을 위해 진행됐다.

김형환 청장은 "납세자를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

이자로 10조원 번 4대 시중은행 사회공헌금은 인색

휴면 자기앞수표 출원

4대 시중은행이 올 상반기 '이자 장사'로 거둔 이익이 10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기 순이익이 모두 1조 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사회적 기여에 기대에 못 미치고 신용 등급이 높은 우량 고객들만 상대하면서 서민과 담보 없는 기업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29일 은행 공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의 상반기 이자 이익은 모두 10조75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1.3%(1조950억원)나 증

가했다.

국민은행이 2조9675억원으로 가장 많은 이자이익을 올렸고 신한은행 2조7137억원, 하나은행 2조5825억원, 우리은행 2조4946억원 순이다.

은행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순이자마진(NIM)의 개선세가 지속한 덕분이다.

신한은행의 NIM은 지난해 4분기 1.58%에서 올 1분기 1.61%, 2분기 1.63%로 계속 올랐고 국민은행은 지난 4분기부터 1.71%로 정제했으나 다른 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

은행들은 영업을 잘해 좋은 실적을 냈다고 하지만 이자마진에 기댄 실적 잔치가 바람직하지는 비판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또 사회 공헌에 인색하다는 평가도 여전하다. 작년 은행권 사회공헌 금액은 7417억원으로 전년(4002억원) 대비 85.3% 증가했지만 배경을 보면 약 2500억원이 휴면 자기앞수표 출원 건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청구되지 않은 자기앞수표 발행 대금이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기부토록 하는 법이 시행된 것일 뿐 지난해 은행의 사회공헌 금액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더 작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81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수치
3	9	12	13	25	43	34
등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1,868,477,334	9			
2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51,902,149	54			
3	5개 숫자일치	1,355,279	2,068			
4	4개 숫자일치	50,000	105,276			
5	3개 숫자일치	5,000	1,718,171			

나주에도 소상공인 지원 센터

창업·경영개선, 상담·교육·자금지원·시장육성 등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지난 2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나주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문을 연 나주센터는 나주시를 비롯한 화순·함평·영광·장성·담양지역 등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상담·교육, 상권인지 정보 제공, 정책자금, 협회화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과 특성화 시장육성 등 전통

시장 지원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수·순천·목포 등 전남지역 3개소에 불과해 소상공인이 접근에 불편을 겪었다"며 "나주센터 개소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을 보다 편리하게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국: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